교회소식 Announcements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단기선교

동연이, 호연이가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멕시코 이사말 지역에서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돌아올때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출산

서경열 장로님 댁에 예원 자매가 어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주 (8/3)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91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빌립보서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2025.8.10 (616호)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Worship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한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8:18-30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인애하신 구세주여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8월 17일	8월 24일
유영환	최빅토리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지난주 설교요약 Sermon Summary

인애하신 구세주여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맞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장의 내용은 앞에 15장의 내용부터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바로 너희가 잃은 양 한마리이고, 너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이고, 너희가 바로 장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심감에 충만합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확신은 근거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절제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리는 그렇치 못했습니다. 세리는 당시 시대에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은 감히 자신의 죄로 인해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했고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한 전부입니다.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칭찬을 받고 세리들이 꾸중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오늘 문장은 나는 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십일조를 드린게 잘못이 아니라 금식기도를 한게 잘못이 아니라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마저도 자신의 의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자기 자신이 속여 버립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착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 놓고 자신을 버려짐을 당할가봐 두려워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나 자신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 지독한 바리새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